

희귀본 소설 『章臺柳』에 나타난 武俠의 원형 연구*

김 명 신

(한양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희귀본 소설 『章臺柳』의 판본과 작품명을 고찰하고 작품의 서사와 武俠 원형의 특징을 살펴봄에 무협 원형의 활약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章臺柳』는 작가미상의 4권 16회로 구성된 희귀 판본의 소설이다. 현재 齊如山의 희귀본이 하버드대학교 燕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章臺柳』의 창작시기는 피휘한 어휘와 醉月樓 간행본으로 볼 때 清代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章臺'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작품에서 '章臺柳'는 章臺라는 별장에 거주하는 柳姬를 지칭한다.

『章臺柳』의 서사는 확장된 애정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로 나뉜다. 애정 이야기에는 李王孫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전쟁 이야기에는 侯節도와 許虞侯가 뛰어나게 활약한다. 작품에 출현한 무협 원형의 특징은 남을 돕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민중을 위해 역적을 처치하며 국난을 극복하고, 열혈의 의기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협 원형은 후대 소설작품 등에서 豪俠, 仙俠, 忠俠, 義俠의 형상으로 수용되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장대류, 희귀본, 무협, 원형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7391)

1. 머리말

『章臺柳』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희귀 판본의 중국소설로 알려졌다.¹⁾ 『章臺柳』 연구는 매우 소략하고 단편적인 각도에서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韓翃과 柳姬의 드라마틱한 애정고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明代 창작품이라는 설, 清代 창작품이라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작품의 원류는 唐代 『柳氏傳』이라는 설과 明代 梅鼎祚의 傳奇 『玉畧記』라는 설이 거론된다. 또한 작품의 서지나 원류에 대해서 정확히 고증되지 않았고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몽뚱그려서 설명한다.²⁾ 게다가 선행논문도 상당히 지엽적이고 편중된 부분을 논구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일까?

최근 중국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논문을 면밀히 살펴보자. 『章臺柳』 연구는 韓翃과 柳姬의 애정 고사가 중심이고³⁾ 조력자인 무협 원형에 대한 분석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그나마 작품의 원류와 계승 관계가 언급되었지만 『柳氏傳』과 『玉畧記』에 대한 부분도 매우 소략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희귀본 소설 『章臺柳』는 ‘희곡 작품의 개편이고, 원류가 唐代 소설 『柳氏傳』이며, 韓翃과 柳氏의 애정고사로 明代 혹은 清代 작품’이라는

1)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1991:666)에서는 『章臺柳』가 희귀 판본이라고 주장한다.

2) 石志鳥(2008:82), 楊鐸(2014:61-63), 穆延柯(2015:275), 徐蔭龍(2015:22-23)에서는 몇 가지 논의가 있다. 대체로 韓翃과 柳氏의 애정고사에만 주목하고 있고 주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소략한 상태이다. 아울러 작품의 인물 묘사가 너무 간단하고 모호하며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작품의 원류는 『柳氏傳』과 『玉畧記』이 거론되지만 『柳氏傳』이 『章臺柳』의 원류에 가깝다고 본다. 『柳氏傳』은 唐代에 창작된 소설이고 『章臺柳』의 기본 줄거리와 많이 다르지 않지만 『玉畧記』는 明代에 출현한 희곡으로 이야기 자체도 변개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3) 穆延柯(2015:275)에서는 明代 梅鼎祚의 『玉畧記』는 『章臺柳』 故事의 내용을 많이 변개했지만 무협의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柳氏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바보 같은 여자라는 점을 제기한다.

담론이 제기되었다.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고 매우 초보적인 분석에 그쳤다. 지금까지 『章臺柳』 서사를 이용한 京劇이 계속 상연되고 주목받음에도 작품의 서사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명하지 못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작품명과 판본 문제를 고찰하고 작품의 서사와 무협 원형에 대해 살펴봄과 무협 원형의 활약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전문 연구자에게는 희귀본 소설 『章臺柳』의 전반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고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성이 좋고 재미있는 원전 작품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II. 章臺柳의 의미와 판본, 내용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작품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작품명인 ‘章臺柳’의 의미부터 명확하게 파악하기로 한다. ‘章臺’의 유래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章臺를 언급한 문헌에는 대개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楚나라의 章華臺로 楚나라 郢都라는 설이다. 魯 昭公 7년에 楚靈王이 章華臺를 건축하여 諸侯들을 불러들인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章臺宮을 가리키는데, 秦나라의 수도 咸陽宮의 명칭이라는 설이다. 『史記·秦始皇本記』에 따르면 “여러 사당 및 章臺, 上林 모두 渭南에 있다.(諸廟及章臺·上林皆在渭南.)”라는 말이 있다. 셋째는 章臺街로 漢代의 長安街라는 설이다. 『三輔黃圖』⁴⁾에는 “長安에는 八街九陌이 있고 章臺街는 그 중 하나이다.(長安有八街九陌, 章臺街是其中一條.)”라는 말에 근거한다. 최근 石志鳥는 章臺는 長安街였

4) 『三輔黃圖』는 작가미상이고 창작연대는 東漢 末期 이전으로 추정되는 地理書이다. 『西京黃圖』라고도 하고 약칭으로 『黃圖』라고 한다.

다가 靑樓妓院의 標志로까지 발전되었고 현대에는 ‘章臺柳’가 기녀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⁵⁾

이렇듯이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지만 엄밀하게 분석하면 ‘章臺柳’는 章臺와 柳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이다. 그렇다면 『章臺柳』에 나타난 ‘章臺柳’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선 작품에서 章臺라고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집안에 애첩 柳氏가 있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서 章臺의 별장에 두어 편히 지내게 했다.

(家中有愛姬柳氏, 卻是他自幼養育起來的, 安於章臺別墅. 제2회)

여기서는 章臺를 별장의 의미로 사용한다. 작품에서 章臺柳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은 제5회, 제11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로 모두 5번 나온다.

柳姬가 앞을 향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다. 韓生(韓翊)이 답례하며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章臺의 柳氏인가요?” 이생(李王孫)이 말했다. “바로 그렇소.”

(柳姬向前, 道了萬福, 韓生回禮道: “這就是章臺柳麼?” 李生道: “正是.” 제5회)

(韓翊이) 마침내 잠깐 동안 읊조리더니 다음과 같이 썼다. “章臺의 버드나무여, 章臺의 버드나무여, 그 옛날처럼 지금도 푸른가? 이전처럼 긴 가지 늘어뜨리고 있다가는 다른 사람의 손에 꺾이고 말 것이네.”

(遂沉吟一霎, 寫道: “章臺柳, 章臺柳, 昔時青青今在否? 縱使長條似舊垂, 也應攀折他人手. 제11회)

5) 石志鳥(2008:82-83)에서는 ‘章臺柳’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長安城 안에서 章臺의 柳氏만이 미모가 천하절색이고 재능이 제일이었는데 韓翊의 손에 떨어졌다.

(長安城中, 只有那章臺柳, 色豔無雙, 才情第一, 到落在韓翊之手. 제13회)

輕娥가 말했다. “성씨는 柳家이고 章臺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모두 章臺柳라고 부릅니다.”

(輕娥道: “姓柳, 因僻居章臺, 故皆呼爲章臺柳.” 제14회)

그(沙吒利)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石門의 좋은 물건은 견고하지 않고 채색구름은 쉽게 흩어지고 우리는 부서지기 쉽다. 내가 이 두 마디 말을 한 것은 연유가 있다. 오직 章臺의 柳氏 때문에 온갖 계교를 써서 저택에 데려왔다.”

(他大怒道: “石門好物不堅牢, 彩雲易散琉璃脆. 俺道這兩句, 有個緣由. 只爲那章臺柳, 千方百計弄到府中.” 제15회)

제5회와 제11회는 韓翊이 얘기한 것이고 제13회와 제15회는 沙吒利가 언급한 것이며 제14회만 輕娥가 설명한 말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章臺柳’는 章臺라는 별장에 거처하는 柳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章臺柳』는 연구 성과가 매우 적고 판본도 희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작품은 4卷 16回로 구성된 희귀본 소설로 작가미상이지만 上海古籍出版社와 春風文藝出版社에서 출간된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방간본이 있지만 간행연도는 알 수 없다. 목록 앞에는 ‘新刻章臺柳目錄’이라 서명되어 있고, 쌍련의 목차가 있다. 판심에는 ‘章臺柳’라고 새겨져 있다. 1面은 9行이고, 1行은 24字로 되어 있고 白口, 四周單邊이다. 이외에, 『中國通俗小說書目』를 보면 范寧 所藏의 醉月樓 간행본이 있다고 한다.⁶⁾

이 작품은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燕京圖書館의 孤本小說에 소장

6)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1991:666) 참조.

되었는데 민국시기 齊如山的 소장본이다. 齊如山은 “작품의 구조가 자못 특이하고 혼잣말을 하며 완전한 代言體이기 때문에 雜劇이나 傳奇와 다를 게 없다. 이러한 체제는 소설에서는 극히 드물고 明代 사람이 지은 듯하다.”라고 주장했고 林辰도 『章臺柳』가 明代의 작품이고 그 당시는 희곡이 소설로 전화되는 시기였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蕭相愷의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는 『章臺柳』가 清代 초의 작품이라 판정하면서 康熙 이후 ‘玄’자를 피휘하여 ‘元’자로 썼는데 제4회에 나온 王元志의 성명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明代의 梅鼎祚는 『玉合記』에서 王玄志라는 성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아울러 『章臺柳』는 현재 醉月樓의 간행본이 남아 있는데, 醉月樓는 『五鳳吟』⁸⁾, 『八段錦』, 『霞箋記』 등을 판각한 清代의 인쇄소이다. 따라서 작품의 창작 시기는 清代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⁹⁾

작품의 내용은 唐代의 才子 韓翃과 佳人 柳姬의 파란만장한 애정 고사를 포함하며 武俠 원형이 새롭게 등장한다. 豪俠 李王孫이 韓翃과 柳姬를 맺어주지만 安史의 난¹⁰⁾이 발발하여 서로 헤어지게 된다. 柳姬는 비구니가 되었다가 대장군 沙咤利에게 잡혀가서 정절을 위협받는다. 韓翃은 侯節度を 도와 전쟁의 전략을 짜다가 우연히 柳姬가 沙咤

7) 蕭相愷(1989:134-137) 참조.

8) 민관동·장수연·김명신(2013:511)에서는 『五鳳吟』은 朝鮮에 유입된 기록은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판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9)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1991:666)에서는 『章臺柳』의 창작 시기가 清代라고 언급한다.

10) 安史의 난은 755년에서 763년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唐나라를 뒤흔들었고 安祿山과 史思明 등이 주축이었다. 이민족 중심의 반란군과 위구르 원군에 의하여 兩京은 황폐화되고 건축물과 문화재는 대부분 소실되었다. 난을 평정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절도사가 병권을 장악하자 기존의 중앙집권제는 무너져 군사적 지방분권화 현상이 강화되고, 특히 화북지방은 오랫동안 반독립적 상태가 지속되었다. 군비조달을 위해 백성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鹽專賣의 급증으로 唐의 체제가 붕괴되어 세법은 兩稅法으로 전환되었다. 중앙집권제의 약화로 귀족세력은 타격을 받고 土豪와 상인들이 藩鎮 세력과 결합하여 정치·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게 되자 중국 고대의 율령지배 체제와 이에 따른 문화는 근본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利 장군의 저택에 억류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도저히 구출할 방법이 없었다. 정절을 굳게 지킨 柳姬는 의기를 지닌 장교 許俊에게 구출되어 韓翊과 극적으로 재회한다. 이렇듯 『章臺柳』의 서사는 남녀의 애정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듯하지만 『柳氏傳』과 비교해보면 등장인물의 역할과 성명의 변화, 전쟁의 발발 등등 서사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다.

唐代 『柳氏傳』에서 변화 발전한 『章臺柳』 소재의 문학작품은 다음과 같다. 話本小說 「韓翊柳氏遠離再會」(현존), 「沙吒利奪韓翊妻」(현존), 『蘇長公章臺柳傳』(현존), 金代의 院本 『楊柳枝』(일실), 宋元代의 戲文 『韓翊章臺柳』(현존), 元代 喬吉의 雜劇 『李太白匹配金錢記』(현존), 元代 鍾嗣成的 雜劇 『寄情韓翊章臺柳』(일실), 明代의 戲文 『金錢記』(일실), 明代 張國籌의 雜劇 『章臺柳』(일실), 明代 張思維의 傳奇 『章臺柳』(일실), 明代 吳鵬의 傳奇 『金魚記』(일실), 明代 吳大震의 傳奇 『練囊記』(일실), 明代 梅鼎祚의 傳奇 『玉合記』(현존), 清代 醉月樓刊 小說 『章臺柳』(현존), 民國 胡無悶의 傳奇 『章臺柳』(현존) 등이 다.¹¹⁾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영향을 주고받아 창작되었지만 그중에서 절반은 일실되었고 나머지 반만 현존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章臺柳』 서사의 변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章臺柳』 소재의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현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章臺柳』 서사의 변개 상황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다. 『章臺柳』의 서사는 최초로 唐代 許堯佐의 傳奇小說 『柳氏傳』에 보인다. 孟榮의 『本事詩』 및 『太平廣記』에도 수록되었고 唐代 이후 戲文, 雜劇, 傳奇, 小說 등 다양한 문학형식으로 개편되었다. 『章臺柳』는 지금도 희곡으로 무대에서 상연되는데, 京劇 중에서 傳統劇目 『章臺柳』로 연출되고 있음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¹²⁾

『章臺柳』의 서사는 언뜻 보기에는 『柳氏傳』과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韓翊과 柳姬의 애정사와 安史의 난으로 인

11) 楊鐸(2014:62-63) 참조.

12) 楊鐸(2014:61) 참조.

한 암울한 시대 배경,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武俠 원형들의 활약 등등이 함께 섞여 작품의 서사가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柳氏傳』은 단편이지만 『章臺柳』는 중편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늘어나고 묘사도 더욱 상세하고 흥미롭게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작품의 서사와 武俠 원형

『章臺柳』는 『柳氏傳』의 내용을 활용하긴 했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 『柳氏傳』은 서면어인 文言로 서사를 간략하게 서술했지만 『章臺柳』는 구어체인 白話를 사용하고 武俠 원형(협의인물)이 화려하게 등장하여 서사의 내용을 양적으로 더욱 확장하고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노력을 비교적 높이 평가할 수 있다.

『柳氏傳』은 남녀의 애정을 묘사하면서 武俠 원형이 등장한 데에 그쳤지만 『章臺柳』는 그와 달리 단순하고 밋밋한 애정소설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章臺柳』에는 韓翃과 柳姬의 애정 고사가 서술되었지만 武俠 원형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전쟁에서 활약하여 작품을 구성한다. 이 점은 才子佳人 소재와 俠義 서사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다.¹³⁾ 작품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자 韓翃과 가인 柳姬의 애정 고사와 李王孫, 侯節度, 許虞侯의 협의 행위 및 충정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章臺柳』의 서사는 두 개의 측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韓翃과 柳姬의

13) 김명신(2000나:267-282)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才子佳人 소재는 唐代 傳奇小說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柳氏傳」, 「鶯鶯傳」, 「霍小玉傳」 등등에 반영되었다. 이후 清代 才子佳人小說이 성행하면서 才子佳人小說은 淸初에 유행한 대량의 작품들을 의미하게 된다. 俠義 서사도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先秦 시기 「燕丹子」로부터 시작하여 唐代 俠義小說 「虬髯客傳」, 「紅線傳」, 「聶隱娘」과 清代 俠義愛情小說 『兒女英雄傳』과 俠義公案小說 『三俠五義』와 같은 작품을 거쳐 현대의 다양한 무협소설 장르로 변화했다.

애정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侯節도와 許虞侯 중심의 전쟁 이야기로 전개된다. 애정 이야기에는 무협 원형 중에서 李王孫이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한다. 『柳氏傳』에서 李王孫은 韓翊과 柳姬를 맺어주는 역할만 했는데, 『章臺柳』에서는 韓翊과 柳姬를 맺어줄 뿐만 아니라 도사가 되어 韓翊의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고 마지막회에서는 玄宗 황제에게 중임을 받는다. 요컨대, 李王孫은 무공과 도술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녀 輕娥와 함께 행방불명된 柳姬를 걱정하며 韓翊을 물질적으로 돕고 격려하는 무협 원형인 것이다.

전쟁 이야기에는 侯節도와 許虞侯가 뛰어나게 활약한다. 『柳氏傳』의 侯節도는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 韓翊과 柳姬의 애정 결함을 돕는 역할만 한다. 그러나 『章臺柳』의 侯節도는 韓翊과 柳姬의 애정을 완성하도록 보조할 뿐만 아니라 安史의 난에서 승리하여 민중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무협 원형으로 등장한다. 『柳氏傳』의 許虞侯는 柳姬를 구출하는 장면에 국한되지만 『章臺柳』의 許虞侯는 侯節도의 부하로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출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다만 許虞侯는 전쟁에서의 활동보다는 沙吒利의 저택에서 柳姬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혈기를 지닌 무협 원형으로 더욱 돋보인다.

『章臺柳』는 『柳氏傳』에 비해 인물, 사건, 구성 등 전반적인 면에서 확장된 서사를 지녔다. 작가는 무협 원형의 활약과 보조 인물의 활동을 통해 왕조의 체제를 옹호하고 유가적 가치관을 공고하게 유지하려는 경향도 드러낸다. 무협 원형은 韓翊과 柳姬의 고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난의 극복에도 기여한 인물들이다. 玄宗 황제는 그들의 공훈을 인정하여 작위와 상금을 하사한다. 황제의 조서에 韓翊, 柳姬, 李王孫, 輕娥, 侯節度, 許虞侯, 沙吒利 순으로 언급됨으로 볼 때 이들이 『章臺柳』의 서사를 주도하는 주요한 인물이다. 그중에서 輕娥는 『柳氏傳』에 없었던 인물로 초반에는 韓翊과 柳姬를 중매하는 시녀였다가 후반에는 여도사로 변신한다. 沙吒利는 『柳氏傳』에서 柳姬를 강탈한 장군이었지만 『章臺柳』에서는 그녀를 차지하지 못한 공처가로 묘사되어 완벽하

게 악하지는 않은 인물로 그려진다.¹⁴⁾ 이렇듯이 보조인물 輕娥와 沙吒利도 서사 진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柳氏傳』에서는 玄宗의 아들 肅宗이 전쟁을 진압했고 玄宗은 등장하지 않는다. 『章臺柳』에서는 肅宗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玄宗 황제가 楊貴妃에게 빠져서 안일함과 나태함을 드러내다가 전쟁에서 侯節度를 중용하여 승리함으로써 황제의 무능함이 약간은 희석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玄宗 황제가 조서를 내림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결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章臺柳』는 道家도 儒家에 순응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작가가 왕조의 체제를 옹호하고 유가적 이념을 선양하고자 함을 드러낸다. 게다가 악행을 저지른 驃騎將軍 沙吒利조차도 회개를 했다고 하며 二百萬錢을 하사받아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는 것이다.

『章臺柳』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무협 원형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남을 돕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 민생을 위해 역적을 처치하며 국난을 극복한다. 셋째, 열혈의 의기를 드러낸다는 점이다.¹⁵⁾

첫 번째 특징을 드러내는 인물이 李王孫이다. 李王孫은 『柳氏傳』과 마찬가지로 본명을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나선다. 처음엔 호탕한 豪俠의 모습이었는데 전생에 신선이었음이 드러나고 도를 닦는 등 환상적 인물로 전환되었다가 儒家의 질서를 유지하고 따르는 인물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豪俠과

14) 『柳氏傳』의 沙吒利는 말하는 대사가 전혀 없지만 『章臺柳』에서는 沙吒利의 행위가 구체적이고 하인 沙蟲兒에게 지시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다. 輕娥도 『柳氏傳』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작가가 새로 창조하여 韓翃과 柳姬의 애정을 돕고 그들의 고난을 부각한다. 이 점은 작가가 인물의 형상화에 상당히 고심했음을 드러낸다.

15) 劉若愚(1991:4-7)에서는 무협 원형의 특징을 다음의 8가지로 설명한다. 1)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助人爲樂). 2) 공정해야 한다(公正). 3) 구속을 받지 않는다(自由). 4)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친다(忠於知己). 5) 용맹하다(勇敢). 6) 성실하며, 신뢰를 받기에 족하다(誠實, 足以信賴). 7) 명예를 중히 여긴다(愛信名譽). 8)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慷慨輕財). 『章臺柳』의 무협 원형은 劉若愚가 언급한 특징의 일부분을 포괄한다.

仙俠의 중간에 위치했지만 결국 왕조라는 체제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인물이 侯節度이다. 侯節度는 『柳氏傳』에서는 재상에 해당되는 左僕射¹⁶⁾ 벼슬을 지냈지만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章臺柳』에서는 韓翃과 柳姬를 도울 뿐만 아니라 安史의 난에 참가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忠俠의 하나로 표출된다. 따라서 侯節度는 후대 무협소설 『射鵰英雄傳』의 郭靖처럼 나라를 위한 大俠의 면모까지 나타낸다고 하겠다.

세 번째 특징을 확연히 나타내는 인물은 許虞侯이다. 그는 남의 고난을 보고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며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한다. 許虞侯는 『柳氏傳』의 막판에 등장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章臺柳』에서는 侯節度는 보조하며 韓翃의 고민을 단번에 해소하는 열혈의 기개를 나타낸다. 따라서 許虞侯는 불의를 보면 불끈거리는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무협 원형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외에, 韓翃도 무협 원형에 귀속될 가능성을 보인다. 그는 柳姬의 애정을 구하는 인물이지만 侯節度和 전략을 짜는 軍師로써 전쟁에 참가했다. 그렇지만 그는 애정을 갈구하는 면이 너무 강하고 柳姬를 구출할 때에 한숨을 내쉬며 나약성을 드러내므로 무협 원형이라 규정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章臺柳』에 나타난 무협 원형의 특징을 탐색하고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겠다.

IV. 작품에 구현된 武俠 원형

‘武俠’이라는 용어는 1904년 定一이 처음 사용한 이래로 王海林, 羅立群, 陳山, 梁守中이 『中國武俠小說史』와 『中國武俠小說辭典』 등등

16) 左僕射는 관직명으로 秦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고 南宋 이후 丞相이라 개칭되었다.

에서 잇달아 사용했다. 예전에 중국 고전작품에서는 ‘俠義’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俠義’를 ‘武俠’의 전신으로 인식했다. 현대 중국에서 무협은 중국 문화현상의 하나로 여겨지며, 唐代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武俠小說로 꾸준히 창작된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무협 소설은 대중소설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장르가 되었다.¹⁷⁾

본래 俠은 의기를 갖춘 정신을 가리키고 武는 무공, 무술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하니 武俠은 무공의 능력을 갖춘 협의인물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武俠을 고전작품에까지 적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래도 고전소설의 협의인물과 武俠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武俠을 근현대 이후 작품의 인물로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¹⁸⁾

『章臺柳』의 李王孫과 許虞侯, 侯節度는 韓翃과 柳姬의 애정을 보조하고 전쟁을 통해 협의정신을 드높인다. 韓翃과 柳姬가 작품의 실마리가 되는 인물이라면 李王孫과 許虞侯, 侯節度는 서사의 내용을 더욱 긴밀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인물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韓翃과 柳姬의 애정을 완성하도록 조력하고 전쟁에 참가하여 승리함으로써 『章臺柳』의 서사가 양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 무협 원형적 인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李王孫과 侯節度, 許虞侯의 용모, 재능, 신분, 품성, 행위 등을 통해 무협 원형의 특징과 수용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⁹⁾

17) 김명신(2000가:267-282)과 전형준(2004:1-9) 참조.

18)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무협소설이 계속해서 유행하게 되자 일부 연구자 및 독자들도 俠義小說도 무협소설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淸代의 협의애정소설 『兒女英雄傳』을 보면 女俠 十三妹가 풍보 승려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현대 무협소설과 비교해 봐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고전작품의 협의인물을 무협이라 단언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다.

19) 서사는 대체적으로 인물로 기억된다. 작품의 구성요소들은 대부분 인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무협의 원형은 遊俠, 盜俠, 女俠, 忠俠, 官俠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淸代에 이르면 義俠은 단독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집단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근현대에 이르면 문파를 이루어 활동하는 경우가

1. 李王孫: 豪俠과 仙俠의 사이

李王孫은 작품에 외모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의 행위와 발언을 통해 성품을 파악할 수 있다. 『柳氏傳』의 李生은 남자다운 기개가 있고 才子를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章臺柳』에도 그와 비슷한 豪俠이다. 그가 재물을 물처럼 쓰고 다니며 사람들과 교우하는 모습은 마치 춘추전국시대 孟嘗君처럼 호탕하게 보인다.

長安城에 사는 李王孫은 돈을 아끼지 않고 친구를 사귀고 우마차로 서신을 전달하며 손님을 모셔왔다. 마치 孟嘗君과 같고 孔北海에도 뒤지지 않는다.

(長安城中一個李王孫, 散財結客, 置驛邀賓. 猶如孟嘗君, 不亞孔北海²⁰). 제1회)

李王孫은 일반인에게도 호탕했지만 韓翊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빈곤한 상황을 알고 나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주고 준마까지 선사한다. 이렇게 李王孫은 韓翊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애첩 柳姬가 韓翊을 좋아하자 두 사람을 맺어주고 자신의 전 재산 수십만 전을 증여한다.(제5회)²¹ 여기서 씹씹이가 큰 豪俠의 면모가 상당히 돋보인다.

그런데 李王孫이 갑자기 仙俠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韓翊과 柳姬를 맺어준 후 그는 華山에 올라 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모습은 『柳氏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후 李王孫은 中條山の 張果²²

많다. 최시한(2015:27), 김명신(1999:247-284) 참조.

20) 孔北海는 孔融(153~208)를 가리킨다. 字가 文學이고 魯國(지금의 山東 曲阜) 사람으로 建安七子 중의 하나이다. 그는 사람들과 교유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인사가 매우 격렬했는데 결국 당시 승상 曹操의 미움을 사서 피살되었다.

21) 『柳氏傳』에서는 李生이 韓翊에게 정확하게 30만 전을 하사했고 그 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2) 八仙 중의 하나인 張果는 九霄仙伯이라고 칭해지며 李王孫의 미래를 예견한다.

를 만나 자신이 전생에 仙都散吏였고 도를 닦고 나면 승천하게 됨을 알게 된다.(제8회) 도를 닦은 李王孫은 韓翊에게 공훈을 세우고 제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제13회) 이러한 면은 道家의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사의 전개를 흥미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李王孫은 결국 華山에서 수행을 마치고 返老還童했지만 승천하지 않고 儒家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황제에게 混元道人 칭호를 하사받고 先天觀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²³⁾

李王孫이 말했다. “내가 예전에 출가하여 처음에 張果 尊師를 뵈고 그 분이 나에게 경건하게 사물을 헤아리고 인간세상을 내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별할 즈음에 또 두 마디 진언을 전하셨습니다. ‘華를 만나면 머물고 侯를 만나면 행하라.’ 이것으로 오랫동안 華山을 왕래하고 오늘 우연히 侯節度를 만나 정말로 그 말에 부합함을 알고서 그에게 승낙한 것이요.”

(王孫道: “俺昔出家, 初見張果尊師, 他命俺虔誠度物, 來往人間. 臨別之時, 又傳兩句眞言, 道是‘遇華則止, 遇侯則行’. 以此久往華山, 今偶遇著侯節度, 正相符合, 以此許他. 제16회)

이렇듯 李王孫이 侯節도와 우연히 조우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이때 신비롭게 감추어졌던 李王孫의 본명이 알려진다. 그는 부패한 재상 李林甫²⁴⁾를 피해 숨어 있었다가 도를 닦고 李筌으로 개명하여 결국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요컨대 도사는 세속을 초월한 존재이지만 李王孫은 儒家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

23) 李王孫은 華山에서 수행한지 20여 년이 되었으니(제13회) 安史의 난이 종결되고 10여 년이 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16회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논공행상을 하는 부분을 보면 시간상으로 오류가 있는 듯하다. 대개 전쟁 직후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바로 포상을 하는데 10여 년이나 지나서 상을 내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작가의 착오이거나 李王孫의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이란 표현을 쓴 듯하다.

24) 李林甫(683~753)는 唐 玄宗 때의 宰相인데 아침을 일삼고 유능한 관리들을 배척하여 ‘口蜜腹劍’이라는 말을 낳았으며, 唐을 쇠락하게 이끈 인물이다.

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협의소설 『天豹圖』를 보면 李王孫을 계승한 인물로 李榮春과 陶天豹가 나온다. 李榮春은 揚州 일대 곤궁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 주어 小孟嘗君이라 불렸고(제1회) 陶天豹는 도술을 익혀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황제를 구출한다.(제39회)²⁵⁾ 이들은 李王孫의 호탕함과 도사의 형상을 닮아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2. 侯節度: 전쟁에 참가하여 국난을 극복한 忠俠

『柳氏傳』에서의 侯節度は 성명이 侯希逸²⁶⁾이었고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었다. 그런데 『章臺柳』에서는 侯希夷로 개칭되었고 용모와 학식이 상당히 과장적으로 묘사된다.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관은 성이 侯이고 이름은 希夷이며 營川 사람입니다. 신장은 7척이고 학식은 만인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으며 십년 동안 종군해서 겨우 副將平盧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王元志의 아들이 부하에게 목숨을 잃어서 모두 저를 節度로 추천했습니다.

(下官姓侯名希夷, 營川人也. 身長七尺, 學敵萬人, 從戎十載, 僅得副將平盧. 一月前, 因那王元志之子, 殞身部下, 共推我為節度. 제4회)

이처럼 侯節度は 7척 장신에, 뛰어난 학식을 갖춘, 文武를 겸비한 인

25) 김명신(2000나:132-133)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李榮春은 재물을 이용해 사람을 도왔기에 ‘小孟嘗君’이라 불리며 李王孫의 초기 형상과 비슷하다. 또한 『七劍十三俠』의 七子十三生과 『三門街』의 張穀도 도술을 배웠고 기이한 술법을 사용하여 악인을 응징한다. 이들은 李王孫이 도를 닦은 후에 보여줄 행태를 수용 발전시킨 것이라 하겠다.

26) 侯希逸(704~765)은 平盧軍營州(지금의 遼寧 朝陽市) 사람으로 唐나라 지방 장교이다. 본래 沙陀利 휘하의 장수였지만 安祿山이 난을 일으키자 반역을 원하지 않아 귀순한 인물이다.

물로 묘사된다. 그는 전략과 전술에도 조예가 깊어서 安祿山의 군영에 미리 세작을 심어 두기도 한다. 그의 나라에 대한 충심은 安祿山의 중개자 韓朝黻가 자기네 군대에 합류하자고 유혹하는 장면에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侯節도가 노하여 말했다. “예끼, 내가 종군하여 백발이 삼천 장이나 되었고 나라에 보답하는 충정이 한 치가 길어났다. 결코 남에게 미혹될 수 없다.”

(侯節度怒道: “哇, 我從軍白髮三千丈, 報國丹心一寸長. 決不受人蠱惑. 제7회)

侯節도는 韓朝黻를 효수하여 자신의 충정과 단호함을 드러낸다. 侯節도는 세심하게 주위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배려심을 가졌다. 韓翊과 柳姬가 沙吒利의 권세를 두려워하자 侯節도는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 沙吒利가 柳姬를 강탈한 경위를 설명한다. 이렇듯 그는 韓翊과 柳姬에게 沙吒利의 위협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

侯節도는 전쟁에도 참가하여 민중의 고난을 타개한다. 그는 安祿山의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하여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린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상세한 전투 장면은 보이지 않고 전략을 짜는 부분만 나타난다.²⁷⁾ 侯節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공적으로 인해 工部尙書로 승진하고 淮陽王에 봉해지며 식읍 二千戶를 받게 된다. 그는 황제에게 충성하고 민중들을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전형적인 忠俠이다.

이러한 武俠 원형은 『三俠五義』의 展昭와 『雪月梅』의 劉電 등에게 수용되었다. 展昭는 단독으로 金龍寺의 음란한 승려 法本과 法明을 처단하러 가기도 하고(제3회) 淸官 包公을 구해주고 관리가 되어 줄곧 곤

27) 작가가 호쾌한 전투 장면을 넣지 않은 것은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묘사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章臺柳』에서 전쟁은 단지 사건을 서술해나가는 과정이자 玄宗 황제가 주요인물에게 포상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忠俠을 대표한다. 劉靄은 관직이 없을 때부터 왜구와 싸워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고(제28회) 御營副指揮使를 제수 받고 나서도 왜구를 섬멸하여 五軍都督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제50회) 이렇듯이 忠俠은 악독한 권력자에게서 민중을 해방시키거나 전쟁에 참가하여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²⁸⁾

3. 許虞侯: 다혈질의 기개를 나타낸 義俠

許虞侯는 성명이 許俊인데, 『柳氏傳』에서는 끝부분에 잠깐 등장한다. 반면에 『章臺柳』에서는 의기가 출중하고 용맹하기가 세상에 절대 없는 인물로 표현된다.(제4회) 아울러 許虞侯는 『柳氏傳』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기개가 넘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래서 參軍 벼슬을 하게 된 韓翊이 ‘許虞侯, 그대는 명성이 五陵에 있는 豪俠의 영웅(虞侯, 你名在五陵, 豪俠之雄)’이라고 추켜세운다.(제9회)²⁹⁾

許虞侯를 영웅으로 묘사한 부분은 韋巡使의 말에도 보인다. 韋巡使는 許虞侯가 柳姬를 구출하러 가기 직전에 무복을 차려 입은 모습을 보고 나서 찬탄한다.

韋巡使가 말했다. “좋아요, 좋아, 허리에 달과 같은 쌍 화살통을 차고[...]영웅의 위엄을 사방에 더욱 드러내니 천 명 중의 猛將보다 더 뛰어난다.”

(韋巡使道: “好, 好, 腰間佩雙鞬似月, [...]越顯得雄威八面, 卻勝他猛將千群.” 제15회)

28) 이처럼 忠俠은 민중의 고난을 해소하며 결국에는 황제에게 관직을 받게 되는 인물인데 근현대 武俠小說에서는 大俠이라 표현된다고 하겠다.

29) 『柳氏傳』의 작가 許堯佐는 許虞侯를 ‘의기에 감격할 줄 알지만 큰 공을 세우는 데는 이르지 못한 자’라고 평가했다. 이와는 달리 『章臺柳』에서는 전체적으로 許虞侯를 호협, 영웅, 뛰어난 용맹을 가진 자로 묘사한다. 이는 『章臺柳』의 작가가 許虞侯를 武俠 원형으로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許虞侯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쟁 중에 侯節度를 옆에서 보조한다. 그러나 그의 활약상은 전쟁에 있지 않다. 그가 불공평한 사건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면에서 의로움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酒樓에 모여 연회를 즐기는데 韓翊만 우울하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許虞侯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韓翊에게 그 이유를 묻고 즉시 행동에 돌입한다. 이때 許虞侯는 정의롭고 혈기 방장한 기개를 두 드러지게 표출한다.

갑자기 어떤 장수가 걸어와서 말했다.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장군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실 듯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柳姬가 말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장군이 나를 불러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許虞侯가 등 뒤에서 서신을 꺼내 柳姬에게 건네주었다. 柳姬는 다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의 韓郎이구나.” 許虞侯가 말했다. “울음을 그치고 빨리 말을 타고 가십시오.” 마침내 柳姬를 말 위에 안아 올리고 나는 듯이 달려갔다.

(忽見一將走來說：“報，報，報，將軍墜馬，勢且不救，要見夫人一面哩。” 柳姬道：“你是什麼人？將軍召我做什麼？” 許虞侯背面，將書交於柳姬。 柳姬接過看完，不覺泣下說：“我那韓郎哦。” 許虞侯說：“住聲，作急的上馬去也。” 遂把柳姬抱在馬上，飛奔而去。 제15회)

이때 許虞侯는 의협심뿐만 아니라 탁월한 기지까지도 드러낸다. 그는 沙吒利 장군이 낙상해서 柳姬를 찾는다는 얘기를 꾸며내고 삼시간에 柳姬를 구출하여 연회장에 도착한다.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고 있었으니 이러한 모습은 『三國演義』의 關羽가 적 토마를 타고 순식간에 安良을 베고 돌아와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許虞侯는 전쟁의 공로로 關東觀察使를 제수 받았으므로 그 후로 민중의 일상을 살피며 불의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許虞侯는 『章臺柳』에서 가장 기개가 넘치고 다혈질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후대 협의소설 『三合劍』의 馬俊, 『綠牡丹』의 鮑自安과 같은

혈기 넘치는 인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³⁰⁾ 馬俊은 열혈을 상징하는 붉은 얼굴을 가졌고 위기에 처한 劉英嬌를 구해주려고 丁光을 때리는 장면부터 혈기를 드러내며(제1회), 황제를 구출하여 悅心王에 봉해지며 역적의 무리와 싸워 승리하는 忠俠의 모습도 보인다.(제42회) 鮑自安은 해적 출신이지만 불의를 싫어하여 嘉興縣에서 고난에 빠진 과부 修氏를 구해주고 양녀로 삼는다.(제33회) 그는 주인공 駱宏勳을 도와서 악한 賀世賴를 포획하는 쾌거를 올리는 등등 협행을 실행하는 인물이다.(제54회) 이렇듯 이들은 모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끈거리는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許虞侯와 같은 무협 원형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V. 맺음말

『章臺柳』는 작가미상의 4卷 16회로 구성된 희귀 판본의 중편소설이다. 이 판본은 齊如山の 소장본이었는데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燕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齊如山과 林辰은 『章臺柳』가 明代에 창작된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蕭相愷는 『章臺柳』에서 피휘한 어휘를 통해 清代의 작품일 거라고 추정했다. 현존 작품을 간행한 醉月樓는 주로 清代 소설작품을 간행했으니 『章臺柳』는 清代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章臺’의 의미로는 세 가지 설이 제기된다. 첫째는 章華臺으로 楚나라 郢都라는 설, 둘째는 章臺宮인데 秦나라의 수도 咸陽宮이라는 설, 셋째는 章臺街로 漢代의 長安街라는 설이다. 최근에는 長安街에서 青樓妓院의 標志가 되었고 이후 기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30) 馬俊과 鮑自安은 모두 의리를 중시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다가 악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하게 되기도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의미가 있지만 『章臺柳』에서의 ‘章臺柳’는 章臺라는 별장에 거처하는 柳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章臺柳』의 서사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韓翃과 柳姬의 애정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侯節도와 許虞侯 중심의 전쟁 이야기이다. 애정 이야기에는 무협 원형 중에서 李王孫이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고 전쟁 이야기에는 侯節도와 許虞侯가 뛰어나게 활약한다. 이렇듯 『章臺柳』는 才子佳人 소재와 俠義 서사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서사내용을 좀 더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했으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다. 그리고 『章臺柳』의 무협 원형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남을 돕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 민생을 위해 역적을 처치하며 국난을 극복한다. 셋째, 열혈의 의기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章臺柳』에는 韓翃과 柳姬를 조력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武俠의 원형이 활약하며 후대 소설에도 수용되었다. 무협의 원형은 李王孫과 侯節度, 許虞侯가 등장한다. 李王孫은 호쾌하고 돈을 물 쓰듯이 쓰며 협의를 실천하는 인물로 韓翃과 柳姬를 맺어주고 나아가 도사로서 나라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는 후대소설에서 豪俠과 仙俠으로 형상화된다. 侯節度는 충의로운 인물로 韓翃과 柳姬가 沙吒利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安史의 난을 진압한다. 그는 충성스럽고 우뚝한 전쟁 영웅으로 후대에는 忠俠으로 수용되었다. 許虞侯는 가장 실천적이고 기개가 있는 인물로 韓翃의 고민을 듣자마자 沙府로 달려가서 柳姬를 구출한다. 그는 후대에 다혈질에 의기를 지닌 다양한 의협 혹은 무협 형상으로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명신(1999),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人物形象」, 『중국소설논총』 제9집, 247-284.
- 김명신(2000가), 「清代 俠義愛情小說이 武俠小說에 끼친 영향」, 『중국소설논총』 제11집, 267-282.
- 김명신(2000나),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명신(2013), 「稀貴本 中國 通俗小說에 대한 소개-한국 소장본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0집, 111-139.
- 대중문학연구회(2001),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 민관동·장수연·김명신 공저(2013), 『韓國所藏 中國通俗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 안기수(2004),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서.
- 이민희(2009), 『역사영웅서사문학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지원(2021), 「역사와 영웅 사이: 『설당연의(說唐演義)』 연구」, 『중어중문학』 제85집, 31-54.
- 전형준(2004),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길수(2022), 「전쟁, 영웅, 이념-한국 고전소설에서 본 전쟁」, 『고전문학연구』 제62집, 89-153.
- 정범진(1995), 『앵앵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최시한(2015), 『소설분석방법』, 일조각.
- 黃婭莉(2013), 「深宮固門外的章臺柳: 淺析中國古代妓女的自由」, 『青年文學家·文學評論』, 2013年 4月, 22.
-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 編(1991),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 劉世德·陳慶浩·石昌渝 編(1990), 『古本小說叢刊 第4輯 第3冊 詳刑公案: 章臺柳』, 中華書局.
- 劉若愚(1991), 『中國之俠』, 三聯書店.

- 穆延柯(2015), 「明代章臺柳故事的流傳及演變」, 『品牌(下半月)』, 2015年 4月, 275.
- 石志烏(2008), 「論章臺柳意象的歷史淵源——楊柳經典意象考述」,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5卷 第4期, 82-85.
- 蕭相愷(1989), 「『魏忠賢小說斥奸書』·『幻影』·『章臺柳』 -中國小說史研究中若幹問題的考辨之二」, 『明清小說研究』, 1989年 7月, 126-137.
- 徐蔭龍(2015), 「從‘章臺柳’意象看社會對女性的物化」, 『青春歲月』, 2015年 5月上, 22-23.
- 楊鐸(2014), 「‘章臺柳’故事的流變及其文化意蘊」, 『廣東廣播電視大學學報』, 2014年 第23卷 總第103期, 61-65.
- 樂繼平(2010), 「朝衣輕惹烏台香,醉帽斜縈章臺柳——論晁端禮言情詞中‘俗’‘雅’兼會的特質」, 『文教資料』, 2010年 2月號 下旬刊, 10-12.
- 中國古代珍稀本小說叢書編委會(1996), 제1권 『章臺柳(著者未詳)』, 春風文藝出版社.

❖ ABSTRACT

The original form of martial artist
in the rare novel *Zhang-Tai-Liu*

Kim, Myungsi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editions and works of the rare novel *Zhang-Tai-Liu*, examine the narrative of the wo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tial arts prototype, and analyze the activity of martial arts prototype.

The *Zhang-Tai-Liu* is a rare novel composed of four volumes and 16 chapters by unidentified authors. A rare version of Qi Ru-shan is currently housed in the Harvard University YanJing Library. The creation period of the *Zhang-Tai-Liu* is very likely to be during the Qing Dynasty based on its evaded vocabulary and Zui-Yue-Lou publication. "Zhang-Tai" is said to have various meanings. In the work, "Zhang-Tai-Liu" refers to LiuJi living in a villa called Zhang-Tai.

The narrative of the *Zhang-Tai-Liu* can be divided into extended love stories and war stories. Li Wang-Sun plays a prominent role in the love story while HouJieDu and XuYuHou play brilliantly in the war story. The characteristic of martial arts prototype that appeared in the work was that it did not spare money to help others, defeating enemy for the people, overcoming national crisis, and revealing the spirit of passion. It can be said that this prototype of martial arts is accepted in the form of HaoXia, XianXia, ZhongXia, and YiXia in later novels.

Keywords: Zhang-Tai-Liu, rare book, martial artist, original form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2

■ 게재확정일 : 2025. 02. 07